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7일  
(월요일)

지역연합신문 6면

## 변화를 꾀하는 강북구 조례연구회 출범

강북구 운영 조례 210건, 규칙 96건 검토  
타 자치구 우수사례 비교검토해 제·개정

강북의회(의장 김동식)에서는 지난 달 28일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강북구 조례연구회’를 만들기로 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조례연구회에는 장동우 부의장을 비롯해 이영심 운영위원장,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 김영준, 유인애, 이정식, 김명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첫 모임에서 연구단체명을 ‘강북구 조례연구회’ 확정하고, 대표의원으로 장동우 부의장, 부대표에 김영준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연구회는 현재 강북구에서 운영 중인 조례 210건, 규칙 96건을 검토해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 정비하게 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를 비교분석해 시대상황에 맞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타구 사례 조사, 현장방문, 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방향 제시와 대안을 만



들 계획이다.

연구단체는 9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장동우 부의장은 “조례 제·개정에 대한 연구모임 필요성에 대하여 항상 구상하고 고민하였는데 오늘 조례연구회 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구회에 함께하신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